■광주시립무용단 발레 '실비아' 주역 3명의 이야기

엄청난 주역 부담… 욕심대로 안될땐 눈물 펑펑

나탈리 포트만 주연의 '블랙스완'은 완벽을 꿈꾸는 발레리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다. 주인공 니나는 결국 자신을 파멸에까지 이르게하는 지독한 강박에 휩싸인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이 무대에 올리는 '실비아'(14~16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주역을 맡은 구윤지(32), 정정은(30), 신송현(30)씨를 만났다. 그녀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인공 '니나'처럼 주역 무용수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부상당한 이야기를 할 때는 금세 눈이 빨개지며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1주일에 1~2켤레의 토슈즈가 닳을 정도로 부단한 연습을 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발레리나 입장에서 '블랙스완'의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다. 주역이라는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만만찮을 텐데.

▲구=새로운 작품에 들어가면 그 작품 속으로 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춤이나 기술적인면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작품과 하나가 돼야한다. 특히 주역으로 캐스팅되고 나면 매순간 시험 받는 느낌이다. 매일 일어나면서 부터가 고통이다.

▲정=캐스팅이 발표되고 나면 그 때부터 잠도 잘 안 오고 항상 긴장 상태다. 주역은 작품을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해서는 안되는 존재다. 매번 작품할 때마다 좌절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그런다. 주역하면서는 진짜 매일 울면서 춤춘다. 남편이 같은 체육학과(조선대) 출신으로 학생때부터 내가 춤추는 모습을 봐와서 200% 지원해준다.

-주역으로 처음 캐스팅됐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는지.

▲구=결혼(남편 강병창씨는 이번 작품에서 남자주인공으로 함께 출연한다) 후 2007년 '지젤'로 데뷔했다. 모든 여자 무용수가 욕심 내는 작품이고 나 역시 가장 꿈꿔왔던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다.

▲정=내 인상이 강렬해서 어릴 때부터 '돈키호테'의 키트리같은 강한 역할이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꼭 이 작품은 내가 주역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웃음) 역시나 이 작품으로 2009년 첫 주역을 맡았다.

오는 14~1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광주시립무용단의 '실비아' 주역들. 사진 왼쪽부터 신송현·정정은·구윤지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그리스 신화 배경… 14~16일 문예회관 대극장

▲실비아는=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19세기 낭만 발레로 인간인 목동 아민타와 요정 실비아가 에로스의 화살을 맞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발레 음악의 지평을 연 레오 들리브의 아름다운 음악이 인상적이며 지난 2009년 광주시립무용단이 재구성·안무해 국내 초연했다.

▲신=2009년 '실비아'로 캐스팅됐다 신종플루로 무대에 서지 못했다. 주역이 되는 게 꿈이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 너무 큰 자리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많았었다. 그때 주역이었던 윤지 언니가 무대에 선 모습을 보면서 울기도 했었다. 지금은 결혼(그녀는 지난 9일 결혼했다)도 하고 해서 그때보다 감정 표현도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두렵긴 하지만 그 때보다 두배로 행복하고 설렌다.

-오랫동안 무용하면서 슬럼프도 있었을 텐데.

▲구=지난해 너무나 하고 싶었던 '백조의 호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는데 마지막 날 부상을 당해 결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발레가 워낙 힘든 과정이라 그저 춤이 좋아서 추는 것만으로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 같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재활하면서 작은 목표부터 다시 세워 조금씩 이겨 나갔다.

-이번에 올리는 '실비아'는 조금 색다른 작품인데 어떤 점이 매력적인가.

▲구=등장신부터 강하고 파워풀한 춤들을 많이 보여주는 등 여자 무용수가 보여줄 수 있는 강인한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정통 클래식 동작을 변형한 춤동작도 색달라 보는 재미가 있을 거다.

▲신=3막 가운데 개인적으로 2막이 가장 매력적이다. 음악도, 춤동작도 관능적이고 유혹하는 느낌이 들어 추면서도 재미있다.

▲정='지젤'이나 '백조의 호수' 같은 익숙한 클래식 작품들과 달리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색다른 느낌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세련미가 흐른다. 신비한 매력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국내 어떤 발레단도 하지 않은 작품이라 자랑스럽기도 하다.

-발레는 다른 무용 장르보다 몸매가 확연히 드러나는 터라 몸매 관리하는 것도 힘들겠다.

▲정=요요가 심한 체질이라 공연을 앞두고는 거의 안먹는다. 비타민이나 과일같은 걸로 버틴다. 결혼전에는 엄마가 챙겨줬는데, 지금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서그런 것 같다. 그냥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할까.(웃음)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나

▲구=지난해 놓쳤던 '백조의 호수'를 꼭 하고 싶다. 사람들이 '백조' 이미지는 딱 이지만 '흑조' 이미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올해 처음 안무자로 참여했는데 많은 것을 배웠다. 내 나이가 여자 무용수로는 경계에 있는 나이다. 좋은 지도자로도 남고 싶다.

▲정=강한 캐릭터라는 한계를 깨고 싶다. '백조의 호수'나 '지젤'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의 작품에서도 내 색깔을 제대로 보이는 카멜레온 같은 무용수가 꿈이다.

▲신='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번주 인문학 강좌 어때요

시립미술관 '인문학강좌Ⅱ' 14일 승효상 총감독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이 연중 공동 주최하는 '인문학강좌Ⅱ' 두 번째 강의가 오는 14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승효상(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 총감독이 강사로 나와 '공존과 상생'을 주제로 강의한다. 한국의 건축 문화를 이해하고, 호남의 집터와 건축물에 담긴 남도민의 정서와 생활을 살펴본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온 승효상 감독은 한국 건축의 거장 김수근 문하에서 실무를 익혔고, 지난 2002년 건축가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하는 '올해의 작가'에 뽑혔다.

파주출판도시의 코디네이터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지휘했고, 중국 베이징 첸먼지역 30만㎡를 재개발하는 설계프로젝트를 따내는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건축가다. 문의 062-613-539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14일 사진작가 박하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광주MBC와 광주교육대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세번째 강좌가 오는 14일 오후 4시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사진작가 박하선(57·아시아문화비전 소장·사진)씨가 '실크로드에 스며든 아시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을 만나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아시아민족들의 삶을 살펴보고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광주의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이날 강연장에서는 실크로드와 티벳 등 오지를 탐방하며 카메라에 담은 사진 전시회도 함께한다.

광주 출생인 박씨는 '실크로드'(1990년), '티벳'(1991년), '문명의 저편'(2000년)' 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그룹전에 참가했다. 여행집단 '문명의 저편' 단장을 맡고 있으며 사진패 'HaSSan'을 이끌고 있다. 문의 062-360-262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카페 필로소피아 인문학 세일 15일 김화택 전남대 명예교수

카페 필로소피아 인문학 세일 11번째 강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하나빌딩 6층에 위치한 카페 필로소피아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전남대 김화택(물리학과) 명예교수가 '생활 속의 상대성 이론'을 주제로 진행한다. 타 분야에 비해 접할 기회가 드문 과학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광학적 특성 연구' 등 40여 년간 250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김교수는 3·1문화상, 광주시민대상 등을 수상했다.

카페 필로소피아 인문학 세일은 전남대 철학과 성진기 교수가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로 지금까지 '센델의 정의론 깊이 읽기',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누구인가' 등의 강의를 개최했다. 문의 010-9603-32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문화관 공연장 명칭 '무들마루' 선정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은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및 별관 명칭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당선작 없이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은 서재경(서울시 종로구)씨의 '무들마루'를, 별관은 김태산(전북 익산시)씨의 '빛고을 너울채'를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무들마루'의 무들은 광주의 옛 이름으로 푸근한 옛 정취를 품고 있고, 마루는 하늘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빛고을 너울채'는 우리의 소리,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이 너울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연장과 별관 명칭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43건이 응모됐고,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상무점 / 하남점
항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1관	별관 내부수리중	1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2관	별관 내부수리중	2관	월드 인베이젼 (12세)
3관	황당외계인 폴 (15세)	3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4관	내이름은 칸 (12세)	4관	라스트나잇 (18세)
5관	써커펀치 (15세)	5관	줄리아의 눈 (18세)
6관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 줄리아의 눈 (18세)	6관	킹스스피치 (12세)/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7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7관	내이름은 칸 (12세)
8관	베니싱 (12세)	8관	웨이백(12세)/베니싱 (12세)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
9관	월드 인베이젼 (12세)	9관	황당외계인 폴 (15세)
10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10관	써커펀치 (15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써커펀치 (15세)	최고급관
2관	내이름은 칸 (12세)	
3관	라스트나잇 (18세)	
4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5관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	
6관	미트 페어런츠 (12세) 베니싱 (12세)	
7관	황당한외계인 폴 (15세)	
8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9관	줄리아의 눈 (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황금주차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cinus

1관	라스트나잇 (18세)
2관	킹스스피치 (12세) / 블랙스완 (18세)
3관	줄리아의 눈 (18세)
4관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5관	레드라이딩 후드 (15세) / 내이름은 칸 (12세)
6관	써커펀치 (15세)
7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